

# 유럽 전역을 강타한 극우 바람을 피하지 못한 스웨덴 2018년 총선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① - 스웨덴

송지원 (스웨덴 스톡홀름 경제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

## ■ 머리말

2018년 9월 9일 실시된 스웨덴 총선은 유럽 전역을 휩쓸었던 반(反)난민, 반이민 정서 기반 극우정당의 득세가 스웨덴에서도 이어질지 관심을 모았던 선거였다. 개표 결과, 스테판 뢰벤 현 총리 주도의 집권연정(사민당, 녹색당)과 집권연정을 지원하는 좌파당이 총 40.7%를 득표, 총 349석 중 144석을 확보하였고, 온건당을 비롯한 우파연합(중앙당, 기민당, 자유당)은 총 40.3%를 득표, 143석을 갖게 되었다. 좌, 우파연합 간 의석 수 하나 차이의 팽팽한 결과가 나타난 가운데 이민자들의 급격한 증가가 스웨덴 사회에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성장한 극우정당인 스웨덴 민주당은 17.6%를 득표하여 직전 총선에 비해 더 높은 지지율을 얻는 데 성공하였다. 반난민, 반이민을 기치로 내건 스웨덴 민주당의 돌풍은 사민당, 온건당 중심의 스웨덴의 정치 지형을 변화시킴과 동시에 이민문제를 바라보는 스웨덴 사회의 시선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 ■ 스웨덴 내 대표 정당의 주요 공약 및 입장

사민당(Socialdemokraterna)의 대표이자 현 정부의 총리를 맡고 있는 스테판 뢰벤(Stefan Löfven)은 총선 공약으로 내건 자신들의 난민, 이민정책은 사민당이 전통적으로 추구하는 정

책방향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2015년 160,000명이 넘는 난민들이 스웨덴에 유입된 이후, 사민당이 이끄는 현 스웨덴 정부는 이민정책을 이전보다 엄격한 형태로 전환했다. 2015년 이전까지 스웨덴은 유럽연합 내에서 가장 관대한 난민, 이민정책을 택했던 국가였지만 현재는 유럽연합이 요구하는 최저수준의 난민, 이민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뢰벤 총리는 사민당이 난민에 대해 그동안 취해 왔던 인도주의적 입장을 유지할 것이나 난민을 무분별하게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 단언했다. 난민들이 난민으로 지위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스웨덴을 반드시 떠나야 하지만, 난민이 스웨덴 사회에 진입했을 때에는 그 이후의 과정을 돕는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이민정책의 방향을 설명했다. 이 밖에도 사민당은 이민자 증가 후 생겨난 주택부족 문제를 위해 주택공급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이민자들의 빠른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sup>1)</sup>

좌파당(Vänsterpartiet) 대표 요나스 회스테트(Jonas Sjöstedt)는 이민자가 스웨덴 경제를 강화시켜줄 것이라 주장했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이민자 친화적인 입장을 취했던 좌파당은 난민과 이민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주권을 보다 관대한 방향으로 개혁할 것임을 공약으로 내 걸었으며, 이민자들을 받되 새로운 이민자들에게 올바른 사회통합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sup>2)</sup> 특히 현재 많은 문제를 노출하고 있는 이민자를 위한 스웨덴어 교육 시스템(SFI)을 개혁하고, 이민자들의 기술 혹은 경력을 스웨덴 노동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일자리 매치 시스템을 강화한다면 스웨덴 경제는 더욱 강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좌파당은 지난 정부 동안 사민당, 녹색당 연정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이번 총선 이후에는 차기 좌파연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sup>3)</sup> 또한 근로시간 단축과 노동자들의 권리 강화를 위

1) Sverigesradio(2018.8.14), "Stefan Löfven: we have a traditional Social Democratic migration policy," Retrieved on Sep 7th, 2018, <https://sverigesradio.se/sida/gruppsida.aspx?programid=2054&grupp=27436&artikel=7019570>

2) Sverigesradio(2018.8.13), "Jonas Sjöstedt: Sweden's tightened immigration laws "have gone too far"," Retrieved on Sep 7th, 2018, <https://sverigesradio.se/sida/gruppsida.aspx?programid=2054&grupp=27436&artikel=7018684>

3) Aftonbladet(2018.9.12), "V kommer inte kräva ministerposter för att stödja Löfven," Retrieved on Sep 14th, 2018, <https://www.aftonbladet.se/nyheter/samhalle/a/710m13/v-kommer-inte-krava-ministerposter-for-att-stodja-lofven>

해서는 다른 정당과도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설 것이라 말했다.

환경, 기후변화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는 녹색당(Miljöpartiet de gröna)의 대표이자 부총리를 맡고 있는 이사벨라 뢰빈(Isabella Lövin)은 올여름 스웨덴이 경험한 대규모 가뭄과 폭염을 언급하며 기후변화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파연합은 그들이 8년간 정권을 잡았던 지난 시기 동안 탄소배출을 줄이는 데 성공하여 환경문제에 기여한 바가 있지만 녹색당을 비롯한 현 정부는 특별한 정책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사벨라는 우파연합의 주장에 강력히 반박했다. 우파연합은 1990년대부터 준비되었던 탄소세 정책이 입안된 시기부터 정권을 잡아 그 정책의 과실만을 취한 것일 뿐, 이들이 집권 시 도입한 정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녹색당은 기후변화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경우 가뭄, 태풍 등이 더 많은 난민 발생에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기후변화의 대응이 난민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기후변화와 난민문제를 연결하여 미래의 위기를 대응해야 한다는 녹색당의 입장은 일부 유권자들의 공감을 샀지만 현재 스웨덴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난민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시각도 존재했다.

총선을 앞두고 온건당(Moderaterna)의 대표 울프 크리스테르손(Ulf Kristersson)은 범죄 근절, 소득세 축소, 의료서비스 이용 시 대기시간 단축, 엄격한 난민제도 유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sup>4)</sup> 온건당은 현재의 이민정책을 손봐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이전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던 2015년 이전의 이민정책의 방향을 택하지도 않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번 선거에서 사민당이 이끄는 현 정권은 이민정책에 대한 많은 공격을 받았다. 사민당은 현 이민정책이 온건당이 주도했던 이전 정권의 이민정책에 기반한 것이라 주장하며 온건당에게 정책 실패의 책임을 돌렸다. 이에 온건당은 자신들 집권 당시의 정책방향이 현재 이민자 문제를 만드는 데 일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며 새로운 이민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sup>5)</sup>

기독교민주당(Kristdemokraterna)의 대표 에바 부쉬 토르(Ebba Busch Thor)는 보건의료서

4) Sverigesradio(2018.8.22), "Ulf Kristersson: Do not return to pre-2015 migration policy," Retrieved on Sep 7th 2018, <https://sverigesradio.se/sida/gruppsida.aspx?programid=2054&grupp=27436&artikel=7024676>

5) The Local(2018.9.3), "Who is Sweden's Moderate opposition leader Ulf Kristersson?," Retrieved on Sep 7th 2018, <https://www.thelocal.se/20180903/who-is-swedens-moderate-opposition-leader-ulf-kristersson>

비스의 책임을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전환하고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 언급했다.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이민문제 외에도 보건의료서비스 관련 공약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권자들은 의료서비스 이용 시 긴 대기시간과 낮은 접근성 등에 큰 불만을 갖고 있었다. 기민당은 지방정부에 이관된 보건의료 서비스의 수준이 지역별로 천차만별인데다가 주민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하락하고 있어 중앙 정부가 책임을 지고 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sup>6)</sup> 이 밖에도 기민당은 현 정부가 시행 중인 육아휴직 할당제가 큰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혁을 약속하는 한편, 난민과 이민자에 대한 정책 또한 현 정부의 입장보다 엄격하게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sup>7)</sup>

한편 중앙당(Centerpartiet)의 대표 애니 뢰프(Annie Lööf)는 이민자 문제를 실용적으로 접근하되 난민에 대해 인도주의적 입장을 취했던 스웨덴의 가치를 완전히 버리지는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당은 우파연합 정당 중에서 난민문제에 가장 우호적인 정당이지만 이민자 관련 비용 절감의 필요성을 다른 정당에 비해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녀는 중앙당이 취하는 상반된 두 가지 입장이 충분히 조율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난민 우호적인 입장에서 중앙당은 스웨덴에 난민으로 유입된 아이들이 뿔뿔이 흩어진 가족들을 만날 수 있도록 가족 구성원들을 추가로 받는 정책과 난민 신청자 중 고령자, 장애인들을 스웨덴에 정당하게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편 이민자 관련 비용 감소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이민자들의 활발한 노동시장 참여와 이를 통한 세금 납부 비용 감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설명했다. Annie는 새로운 이민자들을 노동시장에 진입시키는 방법 중 하나로 덴마크나 독일이 시도한 도제 일자리 제도의 사례를 언급했다. 이민자들은 이 제도를 통해 기술을 배우면서 동시에 적은 급여의 일자리를 제공받지만 기술 습득을 마친 후에는 더 높은 급여를 받는 일자리로 옮길 수 있다. 따라서 이민자를 노동시장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6) Sverigesradio(2018.8.20), “Ebba Busch Thor: Take healthcare out of local government control,” Retrieved on Sep 7th 2018, <https://sverigesradio.se/sida/gruppsida.aspx?programid=2054&grupp=27436&artikel=7023021>

7) Reuters(2018.9.6), “Factbox: Policies of main parties in Swedish election,” Retrieved on Sep 7th 2018, <https://www.reuters.com/article/us-sweden-election-policy-factbox/factbox-policies-of-main-parties-in-swedish-election-idUSKCN1LM27A>

자유당(Liberalerna)은 이번 총선에서 교육문제 해결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표인 얀 베크룬드(Jan Björklund)는 스웨덴 내 수많은 학생들이 국가가 요구하는 수준의 교육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교육제도를 보다 경쟁력 있는 방향으로 개혁할 것임을 주장했다. 특히 공교육의 질이 점점 낮아지면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역시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들며 교육제도를 손보지 않으면 더 큰 위기가 다가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자유당은 이민자의 노동시장 활용을 확대하여 온전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목표를 두었다.<sup>8)</sup>

스웨덴 민주당(Sverigedemokraterna)의 임미 오케손(Jimmie Åkesson)은 당이 가지고 있는 인종주의 극우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잊어달라고 연일 당부했다. 그는 스웨덴 민주당을 이념상 좌도, 우도 아닌 중앙에 위치한 정당으로 봐달라고 요청했다. 스웨덴 민주당은 이민문제에 있어서만 보수적인 시각을 견지할 뿐, 복지제도나 경제분야 정책에 대해서는 중앙 혹은 좌파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자신들에게 씌여진 극우정당이라는 타이틀에서 벗어나려 노력했다. 또한 오케손은 당 내 인종차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알려진 바와 달리 스웨덴 민주당은 더 이상 인종주의 극우정당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스웨덴 민주당의 뿌리가 스웨덴 내 백인우월주의에 기반하고 있고 네오나치를 표방한 전력이 있는 만큼 여전히 정당들은 스웨덴 민주당의 정체성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스웨덴 민주당은 현 정부가 택하고 있는 난민, 이민정책이 관대하다며 자신들이 집권 시, 해당 정책을 더욱 엄격한 형태로 강화시킬 것이라 약속했다. 난민의 무분별한 유입을 막고 이웃국가(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에서 넘어오는 망명신청자만 허용하는 방향을 택할 것이라 밝혔다. 이 밖에도 시민권 취득 시 스웨덴어와 문화 시험을 추가하는 등 더욱 엄격한 요건을 둘 것이라는 공약을 내걸었다.<sup>9)</sup>

8) Sverigesradio(2018.8.15), "Jan Björklund: More money to schools in segregated areas," Retrieved on Sep 7th 2018, <https://sverigesradio.se/sida/gruppsida.aspx?programid=2054&grupp=27436&artikel=7020278>

9) Reuters(2018.9.6), "Factbox: Policies of main parties in Swedish election," Retrieved on Sep 7th 2018, <https://www.reuters.com/article/us-sweden-election-policy-factbox/factbox-policies-of-main-parties-in-swedish-election-idUSKCN1LM27A>

## ■ 총선 결과

2018년 스웨덴 총선 결과를 보면, 사민당, 좌파당, 녹색당의 좌파연합이 직전 선거보다 3.0%p 하락한 40.7%의 지지율을 얻었고 144석(-15)을 획득했다. 이 중 사민당은 28.4% (-2.8%p), 101석(-12)을, 좌파당은 7.9%(+2.2%p), 28석(+7)을 얻었으며 녹색당은 4.3% (-2.4%p), 15석(-10)을 얻었다. 사민당은 1911년 이후, 최저 지지율을 기록하며 단 한 번도 깨지지 않았던 30%의 지지율 방어에도 실패했다.

온건당, 중앙당, 기독교민주당, 자유당이 속해 있는 우파연합은 총 40.3%(+0.8%p)의 지지율과 의석 143석(+3)을 얻어 지난 선거보다 더 많은 지지를 얻는 데 성공했다. 우파연합 중 다수를 차지해왔던 온건당은 지지율 19.8%(-3.5%p), 70석(-14)을, 중앙당은 지지율 8.6%(+2.4%p), 31석(+9), 기민당은 6.4%(+1.8%p), 23석(+7), 자유당은 5.5%(+0.1%p), 19석(-)을 얻었다. 한편 극우정당인 스웨덴 민주당은 17.6%(+4.7%p)의 지지율과 의석 62석(+13)을 얻어 역대 최고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했다.

<표 1> 스웨덴 2018 총선 결과

(단위 : %, 석)

	좌파			우파연합				스웨덴 민주당
	현 집권연정		좌파당					
	사민당	녹색당						
득표율	28.4	4.3	7.9	19.8	8.6	5.5	6.4	17.6
의석수	101	15	28	70	31	19	23	62

## ■ 극우정당의 부상과 연정의 가능성

선거 후 스웨덴에서는 어떤 정당, 그리고 어떤 연합이 이번 선거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스웨덴 민주당을 제외하고 좌파연합과 우파연합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만큼 이번 총선의 수혜자를 아직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지만 최종 승자는 연

정 구성방식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좌파연합을 살펴보면 사민당이 1911년 이후 최저 지지율을 기록하였으나 지지율 감소를 최소화(28%, 여론조사 최고치)하며 제1당 자리를 지켜내 정권유지의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 한편 좌파당은 사민당에 비해 노선을 확실히 하여 직전 선거보다 훨씬 높은 지지를 얻어 이번 총선의 최대 수혜자 중 하나가 되었다. 환경문제를 주로 다루는 녹색당의 경우, 역대급으로 무더웠던 스웨덴의 올 여름 날씨와 이에 따른 지구 온난화의 우려로 인해 지지율 상승을 기대했으나,<sup>10)</sup> 당 내부의 스캔들과 정책의 선명성 부재라는 약점을 보여주며 지난 선거에 비해 낮은 지지율을 얻었다.

우파연합, 특히 온건당은 민주당에 지지층을 대거 빼앗기며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지지율 방어에 성공하며 2위 자리를 지켰다. 또한 우파연합 내 군소정당들의 지지율이 상승하며 의석수를 좌파연합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데 성공했다. 한편 스웨덴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유럽 전역을 휩쓸었던 반난민 돌풍의 수혜를 입어 큰 지지를 얻었다. 스웨덴 민주당은 총선 직전의 여론조사에서 사민당을 위협할 정도로 높은 지지율(23%)을 얻었지만 막판 여러 논란(소수민족 공격, 반유태인 발언) 등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을 피하지 못했다. 최종 결과 17%(여론조사상 최저치)의 지지율을 획득한 스웨덴 민주당은 사민당, 온건당의 뒤를 이어 3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스웨덴 민주당의 대표 이미 오케손은 선거 전 기대치에 비해서는 낮은 지지율이지만 직전 총선에서보다 5%가량 상승한 지지율을 기록한 것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좌파연합과 우파연합은 극우정당인 스웨덴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스웨덴 사회 및 정치가 추구하는 가치와 거리가 있다는 이유로 연정 및 정책 연대를 거부해왔다. 하지만 이웃국가인 덴마크, 노르웨이의 사례처럼 우파연합이 정권을 되찾기 위해 스웨덴 민주당을 연정 파트너로 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만약 이 연정이 성사될 시, 스웨덴 민주당과 우파연합은 이번 총선의 승자가 될 수 있다. 특히 스웨덴 민주당은 제3 정당으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힘을 과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을

10) Politico(2018.9.3), "Sweden's far right sees red on green 'populism,'" Retrieved on Sep 7th 2018, <https://www.politico.eu/article/sweden-far-right-democrats-sees-red-on-green-populism-climate-change-heatwave/>

것이다. 하지만 연정의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온건당은 스웨덴 민주당과의 연정 논의에 있어 다소 애매한 입장을 취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우파연합 내 중앙당이 절대 반대를 주장하고 있어 연정 구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가장 유력한 연정 시나리오는 좌파연합 소수정부로 기존의 사민당, 녹색당 정부에 이번 선거에서 많은 지지를 얻는 데 성공한 좌파당이 함께하는 형태이다. 이번 선거결과도 저번과 마찬가지로 사민당이 1위를 차지했지만 좌파연합이 과반 달성에 실패한 만큼 큰 변화 없이 소수연정이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지난 정부와 비슷하게 과감한 정책 시도는 어려울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 사민당 지지층이 좌파당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좌파연정이 구성된다면 좌파당의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극우정당인 스웨덴 민주당의 지지율 상승을 막기 위해 가장 반대편에서 있는 좌파당을 지지했다는 이들이 적지 않은 만큼 양당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나갈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전망이다.

## ■ 맺음말

이번 스웨덴 총선은 극우정당의 득세, 사민당의 지지율 하락, 좌파당의 약진 등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를 던져주었다. 그동안 스웨덴의 정치지형은 좌파, 우파연합 내 강력한 정당(사민당, 온건당)과 군소정당들이 함께하는 다당제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이번 선거는 두 유력 정당의 세력 약화와 극우정당의 약진, 군소정당들의 세력 확장을 동반하며 새로운 정치지형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한편 이번 선거는 난민, 이민쟁점이 다른 쟁점들을 덮으면서 유권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킨 선거이기도 하다. 난민, 이민문제는 이번 총선뿐 아니라 다음 총선, 혹은 스웨덴의 미래를 좌우할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스웨덴에는 여전히 노동력 부족을 호소하는 산업들이 존재하며 이를 위한 이민자 유입이 필수불가결한 만큼 난민과 이민자를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어떤 방식으로 받을 것인지에 대해 각 정당의 고민과 방향 설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스웨덴 민주당과 같은 극우정당의 부상은 난민, 이민문제가 노동시장과 산업에서의 수요뿐 아니라 스웨덴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도주의를 바탕으로 난민과 이민자에 대해 관대한 시선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스웨덴



이지만 이번 총선 결과를 통해서 이민을 바라보는 스웨덴 사회의 시선 및 우선시되는 가치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총선 이후 이 문제를 각 정당이 어떻게 대응할 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KLI**